

주요소식

청렴 방방곡곡 본청

경남교육청, 2022년 청렴교육 개최

청렴특강·판소리 등 공연 형식으로 선보여 눈길 박종훈 교육감 “청렴은 우리 경남교육의 자부심” 강조

경남교육청(교육감 박종훈)은 9월 18일 본청 공감홀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과 함께 청렴교육 ‘청렴 라이브(Live)’를 열었다.

이날 교육감, 부교육감을 비롯하여 4급 이상 고위 공직자는 직접 행사에 참여했고 현장에 함께하지 못한 본청, 직속 기관, 교육지원청 직원은 실시간으로 영상을 시청했다.

교육은 △지난 5월 19일부터 시행된 「이행충돌방지법」 특강 △전통 판소리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청렴 판소리 「별주부전」 △별이 빛나는 밤을 주제로 하여 청렴을 이야기로 풀어가는 모래 예술 공연 △최선을 다하는 우리 주변의 평범한 영웅(공직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청렴 감동 영상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박종훈 교육감은 “청렴은 우리 경남교육의 자부심이다”라며 “청렴한 공직문화를 바탕으로 미래교육을 준비할 수 있도록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자”라고 말했다.



청렴 방방곡곡 교육지원청



김해교육지원청, 따뜻한 말 한마디로 훈훈한 출근길

출근길 직원 간 칭찬과 격려의 말을 주고 받는
「당신의 따뜻한 말 한마디」 행사 실시



산청교육지원청, ‘2022년도 일반직 공무원 청렴 직무연수’ 개최

일반직 공무원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공감·소통할 수
있는 시간 마련



경남교육청-진주교육지원청, 현장지원 중심 청렴토크 진행

부패취약분야 및 주요정책 집중 점검하여 내실있는
청렴정책 추진에 기여



사천교육지원청, 소통하고 공감하는 인사업무 추진

정기인사 사후 평가를 통한 개선점 파악과 다양한
의견 수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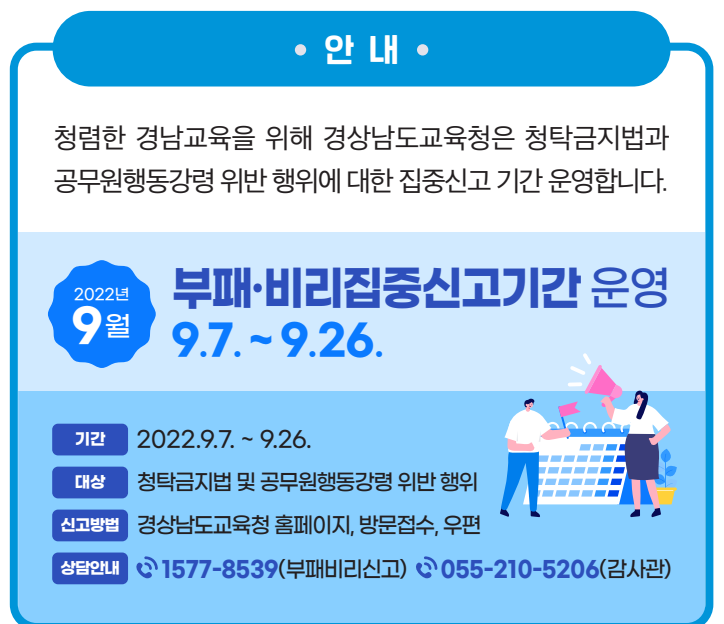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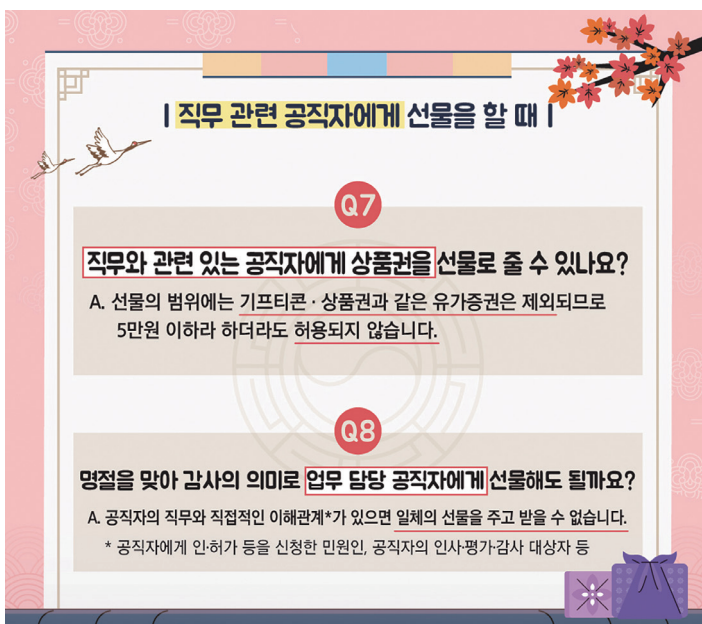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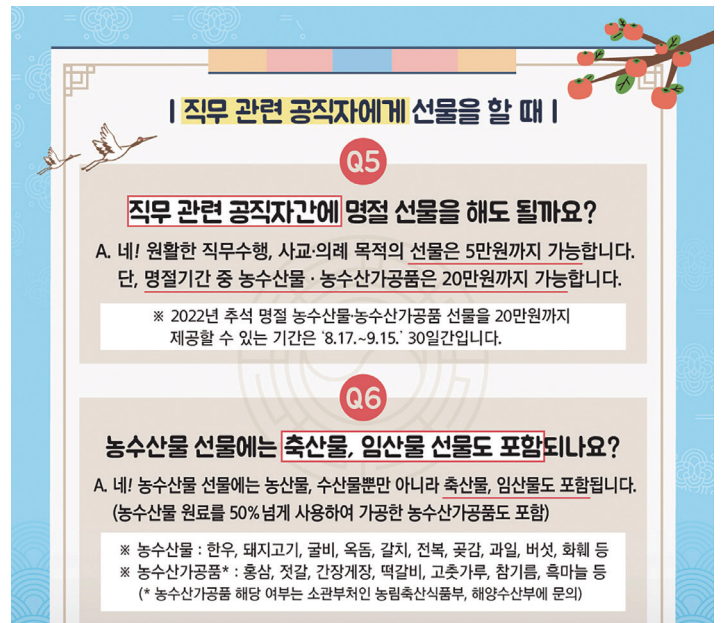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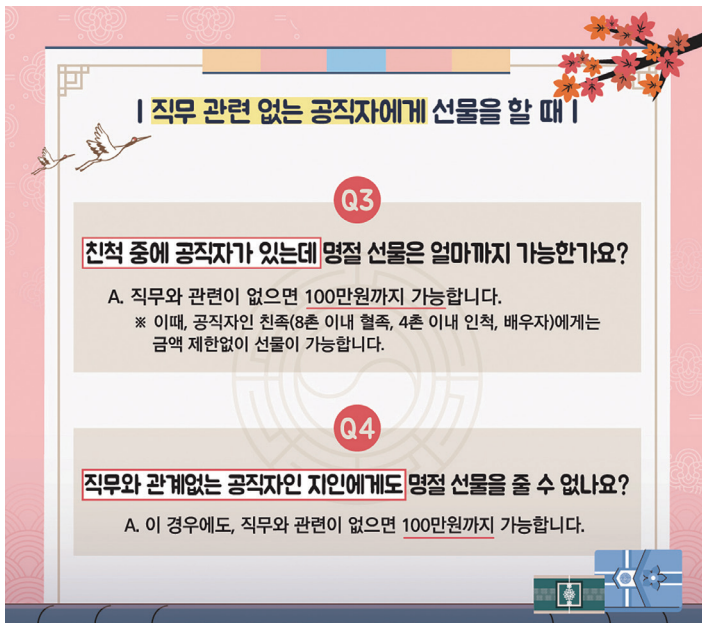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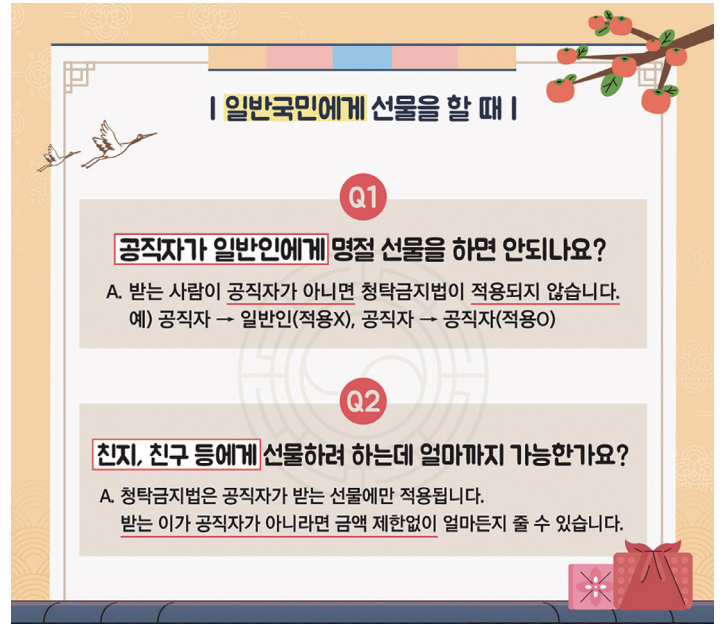
하동교육지원청, 「별천지 하동 아이들의 청렴이야기」 청렴신문 창간호 발간

학생들이 실천 가능한 청렴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
보는 좋은 계기 마련



거제교육지원청, 봉사동아리, 추석 명절 기부물품 전달

봉사단의 기부로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기회 마련



청렴칼럼

청렴과 행복은 관련이 깊다. 청렴한 직장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구성원 개개인이 행복해야 한다. 단순히 생각해봐도 불행한 사람들이 청렴한 직장을 만들리가 없다. 찡그리는 인상으로 일에, 사람에 쫓기는 사람이 청렴하다고 평가받을 일은 지금도 없지만, 앞으로도 없다.

모두가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출근하여 즐겁게 일하는 곳에서 일도 잘되고 성공적인 결과도 더 자주 나타나게 된다. 여기 이곳, 우리 직장에 모인 이유도 사람마다 다양할 것이다. 누군가에게는 꿈을 이루는 곳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생계를 위한 수단일 수도 있다.



그러나 궁극적인 이유를 찾아가다 보면 하나의 공통된 분모에 도달한다. 그것은 바로 행복이다. 모두 각기 다른 생각으로 출발했지만 결국 행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것이다. 행복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낀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을 확률이 높다.

행복한 직장을 만들기 위한 방법은 많다. 그 중에서도 먼저, 성격도 능력도 성향도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는 직장의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단순한 방법의 하나는 상대를 조금 미안하게 하면 된다. 나의 동료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조금만 양보하고 배려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목표에 한발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 청렴감사담당 -

나는 배웠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쏟아 다른 사람을 돌보아도
그들은 때로 보답도 반응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신뢰를 쌓은 데는 여러 해가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임을

삶은 무엇을 손에 쥐고 있는가가 아니라
누가 곁에 있는가에 달려 있음을 나는 배웠다
우리의 매력이라는 것은 15분을 넘지 못하고
그 다음은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함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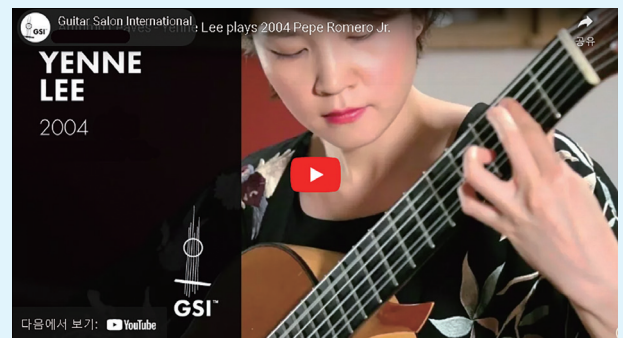
다른 사람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의 최대치에 나를 비교해야 함을 나는 배웠다
삶은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일어난 사건에 어떻게 대처하는가에 달린 것임을

두 사람이 서로 다룬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님을 나는 배웠다
그리고 두 사람이 서로 다투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것도
두 사람이 한 가지 사물을 바라보면서도
보는 것은 완전히 다를 수 있음을

- 나는 배웠다 / 샤를르 드 푸코 -



청렴한 당신에게 드리는 음악선물



YouTube Yenne Lee - Autumn Leaves
세계 최고의 기타연주를 들려드립니다.

1987년 서울 출생의 기타리스트 이예은이 2004년 연주한 곡인 "Autumn Leaves"는 1945년 프랑스 작곡가 Joseph Kosma이 곡을 썼습니다. 가을에 잘 어울리는 이 노래를 경남교육 가족 여러분께 선물합니다. 밝고 좋은 일 가득한 9월 되시길 바랍니다.